

[성주간] 주님수난 성금요일 주님수난예식

수난복음

(사제) 요한 18, 1 - 19,42



요한이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 기입니다.

(해설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키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 정원 하나 있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거기에 모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팔아 넘길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다는 군대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당신께 닥쳐오는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서시며

(그리스도) (해설자)



그들에게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다른사람) (해설자)
 대답하였다. ["나 자렛 사람 예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스도) (해설자)
 ["나 - 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서나 - 다" 하실 때, 그들은 뒷걸음치다가 땅에 넘어졌다.

(그리스도) (해설자)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다른사람) (해설자)
 대답하였다. ["나 자렛 사람 예수요."] 예수님께서 말씀

(그리스도)
 하셨다. ["나다.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

(해설자)
 들은 가게 내버려 두어라."] 이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

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까." 하고 당신께서 전에 하신 말씀

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가지



고 있던 칼을 뽑아,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오른 쪽 귀를 잘라 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코스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군대와 그 대장과 유대인들의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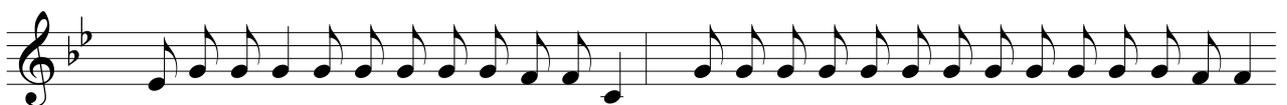
박하고, 먼저 한나스에게 데려갔다. 한나스는 그해의 대사제



카야파의 장인이었다. 카야파는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고 유대인들에게 충고한 자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



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제자는 대사제와 아는 사이여서,



예수님과 함께 대사제의 저택 안뜰에 들어갔다. 베드로는 대문밖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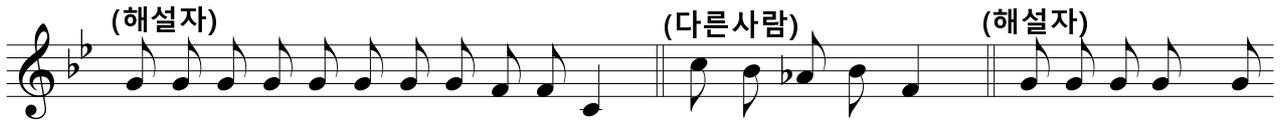
서 있었는데, 대사제와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



너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에 그 문지기 하



너가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가운데 하나가 아닌가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나는 아니오."] 날이 추워 종



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솟불을 피워놓고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서서 불을 쬐었다. 대사제는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 놓고 이야기 하



였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은밀히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나에게



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이들에게 물어보아라.

(해설자)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결에서 있던 성전 경비병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치며 말하였다.

(다른사람)

(해설자)



["대사제께 그 따위로 대답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그리스도)



["내가 잘못 이야기하였다면 그 잘못의 증거를 대보아라.



그러나 내가 옳게 이야기하였다면 왜 나를 치느냐?"]

(해설자)



한 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카야파 대사제에게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가운데 하나가 아니오?"]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나는 아니오."] 대사제의 종 가운데 하나로서, 베드로가 귀를 잘



라 버린 자의 친척이 말하였다. ["당신이 정원에서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소?"] 베드로가 다시 아니라고 부인



하자 곧 닭이 울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카야파의 저택에서



총독관저로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이



더러워져서 파스카 음식을 먹지 못할까 두려워, 총독관저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

(다른사람) (해설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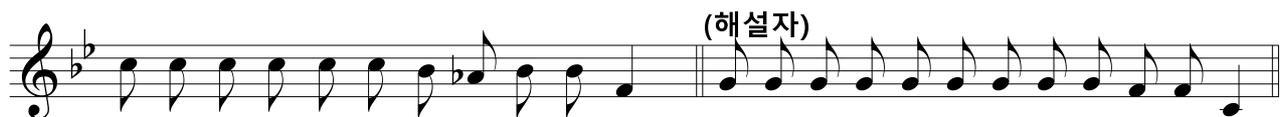
물 었 다. ["무슨 일로 저 사람을 고 소 하는 것이오?"] 그 들 이 빌 라

(다른사람)



도 에 게 대 답 하 였 다. ["저 자 가 범 죄 자 가 아 니 라 면 우 리 가 총

(해설자)



독 께 넘 기 지 않 았 을 것 이오."] 빌 라 도 가 그 들 에 게 말 하 였 다.

(다른사람)



["여 러 분 이 데 리 고 가 서 여 러 분 의 법 대 로 재 판 하 시오."]

(해설자) (다른사람)



그 러 자 유 다 인 들 이 말 하 였 다. ["우 리 는 누 구 를 죽 일 권 한 이 없 소."]

(해설자)



이 는 예 수 님 께 서 당 신 이 어 똥 게 죽 임 을 당 할 것 인 지 가 리 키 며 하 신



말 씀 이 이 루 어 지 려 고 그 리 된 것 이 다. 그 리 하 여 빌 라 도 가 다 시

(다른사람)



총 독 관 저 안 으 로 들 어 가 예 수 님 을 불 러 물 었 다. ["당 신 이 유 다 인

(해설자) (그리스도)



들 의 임 금 이 오?"] 예 수 님 께 서 되 물 으 셸 다. ["그 것 은 네 생 각



으로 하는 말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 준



것 이냐?"]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나 야 유 다 인 이 아 니 잠 소



당신의 동족과 수석 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오.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셨다.



["내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빌라도가 물었다.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오?"]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해설자)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다른사람)

(해설자)



["진리가 무엇이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이 있

(다른사람)



는 곳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저 사람에게서 아



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겠소.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내가



파스카 축제 때에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소. 내가 유대

(해설자)



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원하오?"] 그러자 유대인들이 다시

(다른사람)



외쳤다.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빠를 풀어주소."]

(해설자)



바라빠는 강도였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회중)



예수님을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해설자) (다른사람)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목을 찾지 못하겠소."]

(해설자) (다른사람)



그러 자유 다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



이 있소. 이 율법에 따르면 그자는 죽어 마땅하오. 자기가 하느

(해설자)



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였기 때문이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다시 총독 관저로 들어가

(다른사람) (해설자)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님께서서는 아



무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다른사람)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오? 나는 당신을 풀어줄 권한도 있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해설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위로 부터 받지 않았으면



나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해설자)



너에게 넘긴 자의 죄가 더 크다."]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



님을 풀어줄 방도를 찾았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외쳤다.

(다른사람)



["그 사람을 풀어 주면 총독께서는 황제의 친구가 아니오.



누구든지 자기가 임금이라고 자처하는 자는 황제에게 대항하

(해설자)



는 것이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 가 리 토스 트로 토스 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 토스 트로 토스 는 히브리 말로 가빠타라고 한다. 그날은 파스카 축



제 준비일이었고 때는 낮 열두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인



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여러분의 임금시오."] (다른사람)



그러자 유대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해설자) (회중)]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해설자)



["여러분의 임금을 십자가에 못박으라는 말시오?"] 수석사제들이 (다른사람) (해설자)



대답하였다. ["우리 임금 - 금은 황제 뿐시오."] 그리하여 (다른사람) (해설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



다.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받았다. 예수님께서서는 몸소 십자



가를 지시고 '해골터'라는 곳으로 나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



로 골고타라고 한다.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로 하여



이쪽저쪽에 하나씩 못박았다.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



에 달게 하였는데,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



라고 쓰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곳 이 도성에



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그 명패를 읽게 되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 라틴 말, 그리스 말로 쓰여 있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수석 사제들이 빌라도에게 말하였다.



["유대인들의 임금' 이라고 쓸 것이 아니라, '나는 유대인들의



임금이 다. 하고 저자가 말하였다고 쓰시오."] 빌라도가 대답



하였다. ["내가 한번 썼으면 그만이오."]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분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



저마다 한 몫씩 차지하였다.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것은 슬기



가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찢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



하였다.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차지가 될지 제비를 뽑자."]



"그들이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



리된 것이다. 그래서 군사들이 그렇게 하였다. 예수님의 십자



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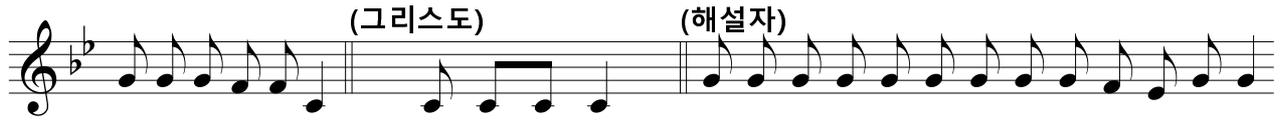
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이 분이 네 어머니시다."] 그때부터 그 제



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뒤에 이미 모든 일 다 이루



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



고 말씀하셨다. ["목 마 르 다."] 거 기 에 는 신 포 도 주 가 가 득 담 긴



그릇 이 놓 여 있 었 다. 그 래 서 사 람 들 이 신 포 도 주 를 듬 뽁 적



신 해 면 을 우 슬 초 가 지 에 꽃 아 예 수 님 의 입 에 갖 다 대 었 다.



예 수 님 께 서 는 신 포 도 주 를 드 신 다 음 에 말 씀 하 션 다.



["다 이 루 어 졌 다."] 이 어 서 고 개 를 숙 이 시 며 숨 을 거 두 션 다.

[무릎을 꿇고 잠시 묵상한다.]



그 날 은 준 비 일 이 었 고 이 틀 날 안 식 일 은 큰 축 일 이 었 으 므 로,



유 다 인 들 은 안 식 일 에 시 신 이 십 자 가 에 매 달 려 있 지 않 게 하 려 고,



십 자 가 에 못 박 힌 이 들 의 다 리 를 부 러 뜨 리 고 시 신 을 치 우 게 하 라 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



뜨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



러 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는 직접 본 사



람이 증언하는 것이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이 믿도록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성경 말씀



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또 다른 성경 구



절은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볼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 뒤에 아리마태아 출신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



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



하자 그가 가서 그분의 시신을 거두었다. 언젠가 밤에 예



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도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백리트



라 즙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인들의 장례 관습에 따라, 향료와 함께 아마포로 감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정원이 있었는데, 그 정원



에는 아직 아무도 문헌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그 날은 유



대인들의 준비일이었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



들은 예수님을 그곳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 님 찬 미 - 합 니 다.